
2020년 제22호 방송심의보고서

2020. 5. 22. ~ 5. 28.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5. 22.	시청률	0.067

【총 평】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농업 교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자고 제안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과 관련하여 순천인비료공장 등의 비료상황과 북한의 농업정책, 농민들의 삶, 남북농업교류 등에 대해 다루었다.

<단박톡>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자력갱생 강조하는 북한 농업의 현실?’, <북마크TV>는 ‘코로나19 상황 속 경제난 극복을 위해 북한이 연일 강조하는 것?’ 등을 다루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쏟는 북한의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에 관한 북한 상황을 58회에서 70회에 이르기까지 12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역별로 집중진단해 주목도를 높인 기획이 돋보였다. 코로나 위기에 직면한 북한이슈를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기획은 대북관련 정책모색은 물론 남북평화 분위기 조성과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아이템이다.

북한농민들이 식량난 극복을 위해 새땅 찾기에 골몰하는 모습과 코로나 사태로 노후비닐을 재사용하고 퇴비 만들기에 열중하는 상황 등 안간힘을 쏟는 북한의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준 구성이 눈길을 끌었다. 북한농업에 시장경제 방식이 도입돼 변화하고 있다는 증언과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주민의 영양결핍상태에 대해 ‘안타까움과 자책’ 표현을 스스로 했다는 배경과 속뜻 풀이도 관심을 모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차단은 북한의 농업물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하여 올 한해 농업생산에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는 장기휴가를 갔다’는 표현은 북한 농업의 현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많았고, 북한 속담 맞추기에서 “기르던 개가(주인을 보고 짓게 되어야) 농사가 풍년이 든다”를 예시하며 기르던 개가 주인을 몰라볼 정도로 농민이 집을 비우고 자주 논밭에 나가는 열성을 보여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속담을 소개했다.

<북마크TV>는 코로나19발 경제난 해결책으로 우량토끼 등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축산을 연일 강조하는 이유, 경제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저비용 건설 사례 등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북한의 실상을 엿볼 수 있었다. ‘단박톡’과 연계해 자력갱생이라는 구호 아래 이뤄지고 있는 소위 ‘생산돌격전’을 소개했는데 북한의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치열한 노력이 잘 그려졌다. 또, ‘풀과 고기를 바꾸자’는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간접적으로 잘 느낄 수 있었다.

【참고사항】

08:50 ‘사회주의 체제에 맞지 않는 농업방식’ 자막에서 체제는 체제의 오기이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방송일자	2020. 5. 23.	시청률	0.116

【총 평】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제13회는 부챗살처럼 펼쳐진 경주 주상절리를 시작으로 경상북도 경주시의 역사와 골목길 여운을 담은 '경주, 길마다 새겨진 시간'을 방송하였다. 그동안 신라 유적지로서 화려하게 알고 있던 경주에 일제 강점기 일본인 거주 군락지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어 만감이 교차했다.

경주 감포항을 중심으로 한 경주 외곽지역의 작은 마을을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며 입체적 촬영을 화면이 많았고 빼어난 경주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 감포리 고샅길(짧고 좁은 골목길), 기다림 상징의 해바라기 계단, 골목집들의 일본 적산가옥 특징, 수탈의 시대에 상흔이 고스란히 남은 질곡의 장소 등을 살려줌으로써 경주의 새로움을 담아냈다.

【구성 및 내용】

'경주, 길마다 새겨진 시간'은 해국길과 고샅길의 사연, 일제 강점기때의 일본인 거주군락지 적산가옥, 감포 앞바다의 대표 생선 도루묵과 어판장 싱싱한 해산물 경매 현장, 경주 외동읍 5일장 시골 장터 풍경, 도루묵 요리 레시피, 경주의 작은 마을 노당리 3대째 기와장인 정문길 와공, 안강시장의 방앗간 풍경 등으로 구성되었다.

신라의 옛 도읍지 경주의 길마다 안고 있는 풍경 소식을 전했는데, 감포읍의 주상절리를 멋있게 그려내며 화려하게 시작했다. 감포 앞바다의 시원스런 바다 물결 풍경이 멋지게 펼쳐졌고, 짙푸른 바다색이 씩씩하고 용맹스런 신라인의 모습을 대신 전하는 듯이 멋진 풍광으로 다가왔다.

문화 해설가로부터 주상절리와 인근 적산가옥에 얹힌 일제 강점기 시절의 이야기를 들으니 또 느낌이 색달랐다. 또, 바닷물을 암벽으로 가두어 개인 수족관을 만든 일본인들의 이야기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 놀라웠다. 고샅길 골목은 아름다운 해국 벽화들로 꾸며져 있었는데 해방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도 언급해주어 또 다른 느낌으로 감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감포읍 수산 시장의 경매장과 5일장을 함께 취재했고, 생선 가게를 하는 상인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집으로 이동해 도루묵으로 만든 요리들을 즐기면서 마무리를 했다. 노당리에서는 기와 만드는 일을 60년간 이어온 기와 장인과 함께 기와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고 가업을 이어가는 보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부부와 함께 참기름과 고춧가루를 빻는 과정을 소개하고 함께 점심을 먹으며 마무리 했다.

특히, 주상절리의 파도 소리와 기와장인의 숨소리와 흙을 치대는 소리도 비교적 잘 표현되어 기억에 남았다. 주상절리 절경을 헬리캠으로 시원하고 웅장하게 잘 잡아냈고 적산가옥도 아주 감각적으로 잘 잡아냈다. 참기름 짜는 과정이나 고춧가루 빻는 과정도 섬세하게 잘 잡아내어 그 냄새가 화면밖에서도 느껴지는 듯했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0. 5. 23.	시청률	0.016

【총 평】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이 사회 곳곳에 불안과 불편함을 초래하는 가운데 우리동네 개선문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한 행정우수 수범사례를 소개해 공무원의 사명감, 책임감, 위민행정의 모범을 제시한 점이 탁월했다.

광주시 북구의 화상수출상담소는 입출국의 제한이 생겨 신규제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 바이어와 화상상담을 중재하고 있으며, 세종시는 세종보건소 직원의 아이디어로 승차진료, 드라이브 스루 진단 검사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의 벤치마킹이 가능해 수범사례의 확산이 기대된다.

우리동네 개선문의 행정우수 수범사례를 소개된 화상수출상담 사례, 승차진료 도입, 자가격리 생활쓰레기 수거 활동 등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벤치마킹이 가능해 수범사례의 확산이 기대된다.

【구성 및 내용】

■ ‘화상 상담’으로 수출 길 개척, 화상수출상담소

코로나19사태로 빚어진 수출 애로 문제를 화상수출상담소의 화상상담으로 수출길을 개척한 사례는 수출업체의 난관을 풀어준 대표적인 우수사례였다. 화상수출상담 참여안내를 상세히 소개해 정보제공과 정책알림이 역할로 수용자 만족도를 높였다. 코로나 사태로 빚어진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제시해 몰입감을 이끌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출국에 제한이 생겨 수출상담회 등이 취소되는 상황들이 펼쳐짐에 따라 인해 중소기업 등은 신규제품 수출 계약에 있어 해외 바이어와의 만남이 어려워져 활로개척에 한계를 나타냈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청과 광주전남중기청, 코트라지원단이 뭉쳐 일대일 화상수출상담소를 마련하였는데 화상수출상담소는 기업들의 참여가 많아지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화상수출상담소는 상담자와 매칭을 이루어 협의한 시간에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 세종시, 지자체 첫 ‘승차진료’ 도입으로 신속 대응

세종시가 지자체 첫 번째로 승차진료를 도입해 진단검사 시간을 단축한 사례와 자가격리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적극행정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인 사례도 코로나19에 신속 대응한 수범사례였다. 특히 승차진료형 선별진료소 운영 아이디어는 세종보건소 직원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값진 사례였다.

특히, 세종보건소 직원의 아이디어로 인해 승차진료, 흔히 드라이브 스루 진단 검사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세종시에 도입되었고, 기존 선별진료소에 비해 신속하게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 한편 자가격리자의 생활쓰레기 처리에 있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유용하다.

프로그램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5. 24.	시청률	0.051

【총 평】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제34회는 '제 발로 걸어온 불무골'은 충남 예산군 산골짜기에서 산나물 농사짓기에 열심인 귀농 5년차 주인공의 열정과 온가족이 보여준 특별한 귀농 이야기를 담았다.

귀농을 통해 부모 세대와의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자신의 세대에 맞는 감각과 가치를 더하여 새롭게 재창출하는 긍정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다. 주인공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골에서 농사짓고 땀 흘린 만큼 수확물을 얻으며, 가족의 삶 속에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또, 도시와 연계를 위해 휴게소를 찾아 판매하는 방식 등 판로의 소통방법을 모습을 보여주었다.

【구성 및 내용】

충남 예산으로 귀농한 부모님을 따라 의 귀농생활 5년차에 접어든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았다. 화가였던 아버지와 피아노를 전공한 어머니가 귀농한 후 부모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하게 된 주인공은 젊은이의 감각으로 반찬가게 운영 및 온라인 판로개척, 미래에 대한 영농계획을 전달했다. 자연과 더불어 뿌린 만큼 노력하고 가꾸어 수확하는 기쁨을 더하는 것이 귀농이 주는 가치임을 전해 주었다.

농산물을 채취부터 가공, 판매까지 하는 일련의 과정속에 산나물과 고사리를 채취하고 고추순을 따고 다듬어 택배 작업을 하고 로컬푸드 매장으로 배송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실감 나게 담았다. 고사리 채취와 가공,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을 취재하고 중간중간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잘 표현했다.

상품을 포장하는 기술이 매우 정갈하고 단정하여 상품의 품질이 좋아 보이고 정성이 담겨져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점이 눈에 띄었다.

특히, 로컬푸드 매장에 내놓는 과정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노하우도 함께 다루어 기억에 남았다. 주인공은 온라인 판매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맘카페 등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직접 배달을 해주고 하는 노하우가 빠짐없이 소개되었다.

또, 예산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젊은이 특유의 사업 수완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런 내용이 실질적인 정보가 되었다. 온라인 시대에 맞게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고 실시간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시대적 관점을 보여주었다.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인공의 생각이 기억에 남는다.

마무리는 예비부부의 데이트 장면으로 마무리했는데 알고 보니 예비 신랑 역시 2대째 표고버섯을 하는 농가의 후손이었다. 젊은 예비부부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나 미래에 대한 꿈을 함께 이야기하고 약속하는 모습이 예쁘게 연출됐고 젊은이들 특유의 포부도 한껏 드러나 훈훈하게 정리되었다.

프로그램	웹툰다큐 멋진 공무원		
방송일자	2020. 5. 24.	시청률	0.038

【총 평】

웹툰다큐 멋진 공무원 제13회는 고속도로 해결사로 불리는 고속도로 순찰대 대원들의 활약상을 그린 '국토 대동맥을 뚫어라! 고속도로순찰대 제11지구대'가 방송돼 몰입도를 높였다. 각종 사고현장에서 순발력있는 후속처리로 2차 사고를 막는 선조치, 화물차량 집중단속, 도로위 낙하물 수거에 이르기까지 순찰대원들의 안전운행을 돕는 일상이 집중 조명된 점이 돋보였다.

고속도로순찰대원들의 책임의식, 사명감과 함께 남모를 애환도 다뤄져 대원들의 역할과 노고를 알려준 점도 의미 있었고, 고속도로 순찰대의 사고처리와 예방단속 활동을 통해 교통관련 정책알림이 역할과 함께 고속도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 캠페인성 구성도 뛰어났다.

【구성 및 내용】

웹툰다큐 멋진 공무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의 위민봉사정신과 자긍심을 부각시킨 기획이 탁월했다. 특히, '국토대동맥을 뚫어라! 고속도로순찰대 제11지구대'는 자신의 안전을 담보로 다른 운전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고속도로순찰대의 현장업무와 진정성이 잘 전달되었다. 도로 위 컨테이너 추락사고, 1차로에서 발생한 승용차 추돌사고,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 단속, 도로 위 낙하물 수거, 화물차 집중 단속 등 다양한 현장에 출동하는 고속도로순찰대의 모습이 그려졌다. 도로 상 낙하물이 발생했을 때는 도로공사의 업무이지만 사고예방 등을 위해 선조치 하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순찰대의 남모를 애환과 식사시간 아침일상 등 업무 뒤편의 소소한 이야기들도 잘 전달되었다. 고속도로 상에서 근무교대가 이뤄진다는 이야기와 식사할 때는 빨리 먹는데 집중해야 된다고 한 대목은 순찰대원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일하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다.

고속도로는 모든 차들이 일정부분이상 고속질주를 하는 위험한 현장이다. 그만큼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므로 평상시 단속과 계도는 필수적이며 차량흐름을 막는 안전사고 처리도 중요하다.

외형이 일반승용차와 똑같지만 전광판과 경광등이 숨겨져 있는 암행 순찰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난폭운전 단속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보통 난폭운전이 많은 지역을 선별해서 출동한다. 주행차로나 갓길주행 위반 등 암체운전의 경우도 단속하고 있다.

【참고사항】

12:12 "인천 고속도로 상의 고속도로순찰대이기 때문에 서로 선조치 할 수 있는" 자막에서 '조치'를 '초치'로 옳기했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5. 26.	시청률	0.003

【총 평】

국민 리포트는 '일자리 위기 속 관공서 청년 아르바이트 인기', '택배 상자 무분별 배출... 또 '수거 대란' 우려', '농촌 마을 구석구석 다녀요...천 원 택시 인기'로 구성하였다. 특히, 관공서 아르바이트나 택배상자 수거하기 등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룬 점이 돋보였다. 또한, 생활비가 모자라는 청년들이 관심 있게 볼 만한 주제를 잘 선택했고, 코로나19로 인한 택배상자 분리배출도 공감되는 내용이었다.

【구성 및 내용】

■ 일자리 위기 속 관공서 청년 아르바이트 인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관공서가 시행하고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소개하고 청년들의 반응을 담았다. 현 상황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취지가 무엇인지, 시급이 얼마인지 등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잘 요약되었고 관공서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이유도 통계수치로 따로 다루어 신빙성도 높았다. 단기간이라는 아쉬움과 안정적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도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이었다.

■ 택배 상자 무분별 배출, 또 수거 대란 우려

코로나19로 택배 구매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택배 상자 배출량도 늘어 이를 바르게 버리고 재활용하는 법을 소개했다. 음식물 쓰레기나 비닐 쓰레기에 대한 재활용 업체의 거부선언을 상기시켰고, 코로나19로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면서 새롭게 문제점으로 부각된 부분이라 더욱 공감을 많이 샀다. 또한 어떻게 분리해서 배출해야 하는지가 꼼꼼하게 잘 설명되어 정보성이 높았고 택배상자의 무분별한 분리수거에 대한 실태 고발은 역지사지의 입장과 타산지석의 교훈을 주었다.

■ 농촌 마을 구석구석 다녀요. 천 원 택시 인기

파주시가 시행 중인 오지 마을 천 원 택시를 소개하고 주민들의 반응을 담았다. 농촌 마을을 다니며 주민들의 발이 돼주는 이 택시는 주민은 천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한다. 교통사정이 열악한 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과 위안을 주고 있다. 특히, 오지 주민들을 위한 파주시의 노력과 운행 시간과 운영 방법도 잘 설명했고, 1년간 이용객 수치도 보여주면서 성과를 강조했다.

■ 야생화 천국, 천상의 화원 '곰배령'

최근 재개장된 곰배령 탐방로의 아름다운 야생 풍경을 소개했다. '점봉산 곰배령은 한반도의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이 교차하는 곳으로 남북방계 식물이 모두 자생하는 지리적 특성이 있다. 한반도 자생식물의 약 20%인 850여 종의 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5. 26.	시청률	0.002

【총 평】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으면서 그 여파가 우리 경제에 언제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톡톡사이다경제> 제260회는 'KDI 올해 경제성장률 0.2%, 코로나19 여파 속 경제전망은?'를 통해 올해 성장률을 전망해보고 내년 경제성장률까지 짚어보며, 장단기적 경기흐름으로 조망해볼 수 있는 안목을 제시했다.

KDI가 솔루션으로 제시한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도입에 대한 의미와 전망을 살펴보고 증세 논의까지 정책제언도 주목을 끌었다. 코로나로 인한 주요국가의 경제동향을 살펴본 부분도 우리나라 수출, 경제회복을 가늠해보는 유익한 정보제공이었다. 최근 코로나19 이슈로 다루는 의제가 경제 침체와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테마 연속기획이라는 점에서 시의성과 연계성이 돋보였다.

【구성 및 내용】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0.2%로 예상한 가운데 올해 성장률의 시나리오별 전망을 제시하여 이에 따른 올해 성장률과 내년 성장률은 물론 하위 시나리오로 인한 역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보았다. 장단기 경제 전망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설득력을 높였고 국내 총생산, 총소비, 총수출, 고정투자별로 코로나19가 미친 여파와 성장률을 전망했다.

KDI는 기준금리를 0% 가깝게 내리고 양적 완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금리 인하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유출될 가능성에는 대비해야 하며 더불어 한국은행에 국채 매입을 제안하는 등의 양적완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래 세대의 재정부담 감소 등 현 시점에서 증세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KDI 보고서에 포함되었다. 국세 수입의 감소세와 적자국채 부담이 커지는데 따라 증세라는 매우 민감한 이슈에 대해 논의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동시에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정책 시사성을 제공했는데 공감이가 가는 대목이었다. 현재 KDI가 요구하고 있는 경기부양적 통화정책에 대해 미국과의 금리 차, 외국인자금 이탈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적극적인 국채매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미국은 1/4분기 경제성장률은 -4.8%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유로존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의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었으며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요국 대부분이 역성장하였다.

【참고사항】

부자연스런 자막 표현의 개선이 필요하다.

03:55 코로나19 장기화 인한 역성장 가능성은? → 장기화로 인한

04:38 코로나19 인한 민간소비·수출 부진 →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방송일자	2020. 5. 28.	시청률	0.003

【총 평】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제35회는 코로나19 기획특집으로 '코로나19에 맞선 기록들,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를 방송했다. 지난 34회에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된다!'편에 이어 국민편에서 살펴본 코로나 극복 기록을 조명한 기획이 돋보였다.

특히,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코로나19를 극복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해 이해와 몰입도를 높였고, 창의적 아이디어 제공, 자발적 방역과 봉사활동,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안전수칙 준수, 물품 기부 캠페인 등 수범사례가 잘 정리됐다. 또한, 코로나19 위기를 원격진료 등 디지털 비대면 산업 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부분도 시선을 끌었다.

【구성 및 내용】

지난 25회부터 33회에 이르기까지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시리즈 기획을 방송해 재난 극복 의제설정을 통해 일체감을 조성한데 이어 다시 기획특집으로 코로나19 극복 사례를 정부편과 국민편으로 나누어 고찰한 기획이 탁월했다.

특히, 자발적 동참과 협조라는 키워드로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의 노력을 되돌아본 의미 있는 기획이었다. 생활방역으로 전환이후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공동체 정신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또, 코로나19 극복 요인에 대해 자발적 시민참여, 뛰어난 공동체 의식 등으로 분석한 내용도 설득력을 높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하나가 되어 노력한 국민들,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을 위했던 따뜻한 마음과 노력들을 살펴보았다. 공적마스크는 코로나 확산 초기에만 하더라도 약국마다 공적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곧 공적마스크 정보나 확진자 동선 어플을 개발하여 공유하는 국민들이 있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투명 마스크도 개발되었으며 공적마스크 공급 인력부족에 의용소방대원 등의 자원봉사가 이뤄지기도 했고 마스크를 제작하여 나눠주는 봉사도 이뤄졌다. 또, 특정 대학은 안심대문이라는 시설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발열검사 및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들을 의료기간으로 안내했고, 살균 소독제, 마스크 등의 코로나 대비 물품을 나눠주었다.

생활방역에 있어서 지자체별 방역물품 무상대여 사업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방역에 도움을 주었다. 지자체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소상공인 등의 자가방역을 위해 방역 약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감염병 예방 수칙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운수업종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택시나 고속버스를 타는 고객들도 감소하여 경제적 타격이 컸다. 이에 고객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매일 철저하게 소독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운전자와 고객 좌석 사이에 비닐칸막이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택시도 있다.